

# 初志一貫 水産發展 研究에 專念

〈下〉



鄭文基 篇

### ◇ 수산대학장시절

수산대학장에 취임하여, 선생들은 재임명을 통해 정리했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내가 학장을 맡는데, 학교에서는 내 말을 잘 듣는다면 학장을 맡을 것이고, 만들겠다고 했다.

이렇게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수습을 일단락 짓고, 도시사와 타협하기를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경찰관이 학교내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않기로 하나 교외에서 문제가 생길때는 경찰의 권한대로 처리해도 좋다고 했다.

별문제가 없이 지나가다 3개월정도 지나 동맹휴교가 일어났다. 이유는 시설이 부족하고, 선생이 시원치 않다는 등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현재 우리나라가 軍政治下인 동시에 水産專門學校 이상을 전공한 敎員이 얼마 없어 선생의 확보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이런 실정을 감안하고 공부를 계속하려면 하되, 그 만두는 것은 자유다라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를 메스컴에서 알고 기자들이 찾아와 다시 수습방안을 표명해 달라고 해서 “대 학생들이 이런 실정하에서 공부를 한다면 가르칠 것이고 안한다면 불간섭이다.”라고 밝혔더니 “스트라이크 방지책으로는 독특한 대책”이라고 하여 신문에 대서 특필로 보도했다.

그리고 나서 학생대표들이 찾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 ◇ 水産行政을 맡고

그뒤 李勳求씨가 농림장관으로 임명되어 수산대학시찰을 왔다가 多島海를 시찰할려는데, 같이 다니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같이 다녔다. 그랬더니 수산국장을 맡아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국장의 권한은 한계가 있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우리가 있으니 그 보다는 학교생활이 좋다고 거절을 했더니 그러면 겸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고 했더니, 미국식으로 전결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고려해 보겠는데 교수회와 학생회를 열었더니 찬성결의가 되었다.

서울에 와서 수산국장을 하면서 수산대학에는 부학장제도를 두었고, 제일차로 수산대학실습장으로 진해실습어장·대구실습어장·실습어선·통조림공장·한천공장 등을 불하시켰다. 다음으로 전국수산협동조합대회를 기하여 조합장들에게 “전국어시장에서 매상고의 일부를 모아 수산대학 재건기금으로 3년간 3억원을 조성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적극적인 찬성을 얻었다. 첫째에 약 6천여만원이 모여 기숙사등을 건립했다.

특히 이 당시 적산어장어업권의 처리문제가 골치거리였다. 우리나라의 해방전 수산업은 정어리건창망, 기선저인망등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주로 했었기 때문에 고기잡이 배의 허가를 가

진 한국인은 함경도·경상도·강원도 등에 1명씩만 정책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을 뿐이었고, 수천건의 어장어업권 허가는 일본인들이 독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어업권 허가만 가지고 있으면 1천석이상의 지주보다 더 알아주었던 것이다.

이런 큰 이권때문에 보통식으로 처리하다가는 2년이상 걸리게 될 것이며, 불량 브로커들로 인하여 대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처리안으로 “적산어장은 일본인 밑에서 관리하던 한국사람이 그대로 관리하되 우리 정부가 수립되면 새로 설립되는 수산업법에 의해 처리 된다.”고 하는 안을 제안하였더니, 농림장관과 군정장관이 보고 아주 간명해서 좋다고 하면서 “Speedest”라고 했다. 이로서 어업권 처리문제는 일단락 됐다. 그런데 하루는 「제라디」라는 해링통(일본수산국장)이 찾아와 한국에는 물고기자원이 남아 돌아갈 정도로 풍부하니 일본어부들이 고기를 좀 잡아가도록 해도 좋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어족분포도를 내어 놓았다.

그 어족분포도를 보니 황해바다를 바둑판같이 그려놓고 그 바둑판안에 물고기자원의 量까지를 산출해 놓았는데, 어족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도 수산대학까지 나온 전문가가 이런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니 왜냐고 물었다. 그래서 수시로 이동하는 어족이 어떻게 한곳(부력)에 그렇게 머물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사실은 그 동안 한국연해에서 일본인들이 고기를 마구잡아갔기 때문에 이젠 어족이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더니 납득이 가는 것이었다.

또 하루는 미국인 고문이 미국인 인사를 동반하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한권의 독점 판매를 말겠다고 하면서 가격은 우리쪽에서 산출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100근당 생산비조사를 해서 18만원정도로 산출해 놓고 산출근거 50여항목을 일일이 미국인과 합의하면서 사인을 받아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그리고

李勳求농림장관을 통해 국제시세를 조사해보니 대만과 일본등에서 생산하는 한천이 100근당 20여만원인 것도 알아 두었다. 그랬더니 한천 생산업자가 찾아와 100근당 9만원만 받아달라고 하기에 우리가 지금 18만원을 산출해 놓고 타협중이니 아무소리 말고 절대 보안유지를 해야 한다고 돌려보냈다. 결론은 17,500원에 가격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한천생산자입장에서는 정말로 고마운 일이었다. 따라서 수교비조로 100만원을 가져왔기에 그 돈은 가져가 조합기금이나 조성하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돌려 보냈다.

#### ◇ 제주도開發

1·4 후퇴때 부산에서 최순주재무장관이 만나 자고 해서 갔더니 제주도개발단을 맡아 달라고 해서 수산분야만을 맡겠다고 하니 결코 개발단을 맡으라고 하면서 수산개발위원회가 조직됐는데 점해서 맡으라고 했다. 그래서 언커크대표와 최순주장관과 함께 제주도 현지로 갔다.

제주도개발사업의 내용은 서울·인천 및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생활필수품공장을 60억에 산으로 단시일내에 제주도로 이전시키는 일이었다. 그 일은 만 11개월만에 끝마쳤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제주도에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었던것 같다.

그때 한가지 특별히 해놓은 일은 일본에서 밀감표목을 들여와 밀감과수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제주도 밀감의 집단재배 시발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 ◇ 水産·魚類學 연구

대학교시절에 도서관에서 문헌을 조사하다가 일본의 고사위원이 명치유신전에 집대성한 것인데, 일본 고학자들이 연구발표한 책을 총망라하여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동물”이란 책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료가 꼭 만들어져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학졸업 후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틈틈이 한국산 물고기의 분류와 생태를 연구해 왔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고문헌 수산자료수집은 어려운 과정이 많았다. 한가지 잊혀지지 않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다.

하루는 성대 「藤田」라는 교수와 상의를 하었는데, 남산에 「鮎貝」라는 학자가 한국문화에 깊은 연구를 하고 있어 많은 자료와 서적을 수집하고 있으니 그 사람에게 가보면 좋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鮎貝」라는 사람을 찾아 갔더니 이쪽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자기말부터 했다.

그가 “輿地勝覽을 읽어보았느냐”고 물기에 읽었다고 했다. 다시 그가 “거기에 魚名기록이 많이 있는데 魚名이 120 여종이나 기록되고 있다.”고 하면서 “魚名의 정체를 다 아느냐”고 하기에 몇가지 魚名은 모르겠더라고 하니 그가 “자기도 20여년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魚名이 있는데, 그중 行魚와 古里麻라는 이름의 정체를 알고 그 지방까지 갔으나 결국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헌을 보다 이들이 나오면 신경질이 나서 덮어버리고 하는데, 자기는 풀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포기했으나 풀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은 ①어류학·분류학에 기초가 있는 사람, ②한국방언을 잘 아는 사람, ③한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말을 들으니 바로 풀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사람인것 같으니 풀어 주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풀어보겠다고 하고 行魚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다. 이 결과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에는 形態에 따라 붙여진 이름, 生態에 따라 붙여진 이름, 方言을 吏讀(吏頭)文으로 漢文化한것 등이 魚名으로 분류됨을 알고 行魚는 生態를 따서 명명된 것으로 짐작하고 제주도에서 回游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따라서 行魚의 정체를 알려면 제주도를 가야할것 같아 제주도로 출장을 갔다.

일주하면서 100여명씩 모아놓고 설명을 해보았으나 몇군데를 다녀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모슬포에 가니 한 노인이 안다고 하면서, 서당에 다닐 때 “行魚는 몇치”라고 배웠다는 것이었다. 그때 기쁜은 형언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古里麻는 가야모노리”라는 海藻類임

을 알았다. 그에게 이렇게 알려 주었더니 아주 좋아라 하면서 극진히 후한 대접을 하고 관계서적을 가져가 연구하라고 했다.

성대 「藤田」교수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을 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 이처럼 그 당시 남이 소장하고 있는 古文獻을 빌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틈틈이 배겨와야 했는데, 현재 수집된 고문헌 36권이 모두 이런식으로 수집된 자료이다.

#### ◇ 해방후 수산업의 발전

해방전 우리나라 수산업은 극히 원시적이었음 뿐아니라 일본인들에 의한 착취업이었다.

오늘날 수산업은 잡거나 채취하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 발전되고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원양어업에서 원양어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르는 어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담수어의 자원을 연구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공해문제는 수질오염에 까지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으니 수질보전과 오염방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의식과 법이 변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陸地의 自然保護를 위해 「그린벨트」가 설정되고 있듯이 水産資源의 保護를 위해 水産資源이 번식하는 主要水域에는 「부루벨트」가 시급히 설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원양어업의 발달은 국제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동어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著 書

朝鮮魚名譜(1934), 朝鮮明太魚(1936), 朝鮮海苔魚(1937), 韓國魚譜(1954), 韓國動物圖鑑魚類篇(1961), 새로운 海洋知識(1961), 魚類生態學(1968), 魚類博物誌(1974), 茲山魚譜(1977) 韓國魚圖譜(1977).